‘동학’, 미술언어로 새롭게 조명하다

김성민 작 ‘그들의 초상-전봉준’

도립미술관, ‘동학’ 전
회화·조소 등 통해
역사적인 궤적 그려내
전시는 내년 2월 5일까지

유휴열 작 ‘동학군 전주 입성’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은 ‘동학’을 미술언어로써 새롭게 기술하고 관객과 교감을 갖는 전시를 마련한다.

김광진(작고작가), 김성민, 김태순, 나명규, 박경종, 박문종, 박성수, 박종석, 박하선, 서용선, 송만규, 오상조, 유휴열, 윤성필, 정복수, 최지연, 하수경, 허진, 홍성녀 등 19명의 초대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동학의 역사적·사회적 궤적을 그려낸다.

‘일본군의 외세에 맞서는 민중의 힘을 동학으로 보여주는 회화, 백두산 천지로부터 전주 풍남문까지 이어지는 신전주화약, 전봉준 묘지를 만들고 이에 참배하는 관객이 그 흙을 한 봉투씩 가져가게 하는 설치 작품, 최제우의 얼굴이 가끔씩 서양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동학을 이야기하는 영상작품, 동학군의 전주 입성을 환영하는 민중들의 춤을 열거한 설치 작품’ 등 작가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동학에 대한 그 무엇을 오늘의 문제 혹은 민주주의의 가치·정권의 부패와 이에 대한 척결로 결부시켜 표현한다.

전주대학교 미술교육과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한 유휴열 미술가는 동학군의 전주입성을 자축하는 작품 ‘동학군 전주입성’을 선보인다.

동학농민혁명사를 보면 공주전투와 우금치전투 등에서 무차별 사살된 농민군들의 우울하고 참담한 역사적 사실들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작가는 동학농민군의 우울했던 역사가 아닌 기뻐했던 기억들을 찾아 나선다. 작가는 당시의 자축했던 분위기를 실재처럼 연출하고자 민초들의 춤사위 모습을 설치작품으로 재현한다.

또 전북도립미술관 ‘전북청년 2015’ 미술가로 선정된 바 있는 김성민 미술가는 동학농민군의 선봉에 섰던 전봉준 장군의 초상을 거친 붓질로 표현, 기백 넘치는 당당한 모습으로 재해석한다. 작가는 ‘그들의 초상, 전봉준’ 통해 장군의 위엄 있는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북 군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김태순 작가는 ‘평등세상’을 삼베 천에 아크릴로 형상화 했다.

작가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민중들의 바람이 담긴 동학사상, ‘인내천’에 근간을 두고 작업했다. 작품의 재료로 쓰인 삼베는 여성들의 정성과 노동을, 씨실과 날실의 직조는 남녀평등을 각각 상징한다.

전시는 9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1~5전시실에서 열린다.

**문의 063-290-6874. /정해은 기자

태조·영조·철종 어진, 다시 태어나다

어진박물관, 모사 특별전
오늘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어진박물관(관장 이동희)은 〈태조·영조·철종 어진 모사 특별전〉을 9일부터 어진박물관 어진Ⅰ·Ⅱ전시실과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다시 태어난 어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기존에 사진으로 전시해 오던 몇몇 어진을 보완하고 어진과 관련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어진박물관은 2015년부터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현존하는 태조·영조·철종 어진을 토대로 신규 어진을 모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별전에선 유리원판으로만 전해오던 준원전 태조어진을 비롯해 흥룡포로 갈아입은 경기전본 태조어진, 불에 탄 한쪽 부분을 복원하여 모사한 철종어진, 원본대로 반신상으로 모사한 영조어진 등 4점의 어진을 제작해 새로이 공개한다.

경기전 홍룡포본 태조어진은 전통 초상화가로 잘 알려진 권오창 화백이 모사하였다. 경기전 태조어진(국보 제317호)의 복색을 청색에서 홍색으로 바꾸어 그린 것으로, 용안을 포함하여 절반가량이 소실된 상태로 남아있는 홍룡포본 태조어진(1900년 제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을 참고하여 그렸다.

준원전 청룡포본 태조어진은 유리원판으로만 전해오던 준원전 태조어진을 추정해 권오창 화백이 그려냈다. 유리원판은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것으로 사진 속 태조는 검은 수염의 장년의 모습이다. 사진 속 어진의 크기를 추정하여 현존하는 태조어진 가운데 가장 큰 화폭에 담았다.

반신상 영조어진은 1744년(영조 20)에 제작한 것을 1900년(광무 4)에 이모한 영조어진(보물 제932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을 모사한 것이다. 미술해부학 박사이자 얼굴학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조용진 교수가 그렸다.

철종어진은 1861년에 제작되어 현재는 반이 불탄 상태로 남아있는 철종어진(보물 제1492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을 새로 모사한 것이다. 지역 화가인 이철규 교수(예원예술대)가 불탄 부분을 추정 복원하여 모사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태조어진 진본도 함께 공개된다. 태조어진은 전주 경기전에 1410년(태종 10) 처음 봉안되었으며, 1872년(고종 9) 구본이 낡아 세초매안하고 새로 모사하여 모셨다. 경기전 태조어진은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로 2012년에 국보 제317호로 승격되었다.

**전시는 내년 2월 26일까지.
문의 063-231-0090. /정해은 기자

‘노벨상’ 밥 딜런 소설
‘타란툴라’ 국내 첫 출간

대중가수로서는 세계 최초로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이 쓴 유일한 소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된다.

출판사 문학동네는 오는 20일 밥 딜런의 소설 ‘타란툴라’를 국내에서 출간할 예정이며 현재 예약판매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타란툴라는 밥 딜런이 1966년에 쓴 ‘실험소설’이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시적 산문과 가사의 실험적인 조합이 담긴 내용이 특징이다.

‘…전쟁은 돈 & 탐욕 & 자선 단체들에 의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사실 인생은 읽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 담배에 불을 붙일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등의 문구 처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했다.

이 책은 ‘밥 딜런 자서전(Chronicles)’과 함께 밥 딜런이 직접 쓴 두 개의 저서 중 하나이자, 밥 딜런이 내놓은 유일한 픽션이다.

그가 25세인 1966년에 썼지만 출간 전 교정을 남겨두고 교통사고를 당해 이후 1971년에 초판이 미국에서 출간됐다. 이후 미국에서는 1994년, 2004년에 다시 출간됐지만 국내에서 출간되는 것은 처음이다. /뉴시스

“박근혜권력의 본질을 알았기에”

화제의 신간 - 전여옥 ‘오만과 무능’

한때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던 ‘원조 친박’이었다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등진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담은 책 ‘오만과 무능-굿바이, 朴의 나라’를 내놨다.

전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재임 시절 대변인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지만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려왔던 인물이다.

이번 책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현 시국을 예견했던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았다. 한나라당 대변인, 최고위원으로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꿰뚫고 정치와 재벌의 짬짜미, 춤추는 비선의 방종, 검찰과 세무조사를 내세운 공포 통치, 주술정치의 농단 등을 파헤친다.

이 책은 7개의 테마로 구성돼있다. ▲박근혜의 ‘사유물’로서 대한민국이 겪어야 했던 ‘재앙’ ▲‘최순실 기획사’의 ‘아이돌’격인 박근혜의 ‘무능’ ▲40년간 최태민이 친 주술의 덫에 걸려 자행한 국정 ‘농단’ ▲국민을 배신한 ‘오만’ ▲길라임 코스프레까지 봐야한 국민의 ‘참담’ ▲한나라당 대변인을, 최고위원을 사퇴하게 된 전말을 밝히는 ‘결별’ ▲이제는 ‘NO’를 외쳐 ‘희망’을 만들자는 제언 등이다.

전 전 의원은 “박근혜권력의 본질을 알았기에 저는 참 무서웠다. 평생 두려움없이 산다고 큰 소리 친 젊은 날도 있었지만 지난 4년은 참 힘들고 무서웠다”며 “박근혜권력은 어제 보신 것처럼 재벌을 동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검찰, 경찰, 사법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력도 총동원하는 무시무시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돌이켰다. 337쪽, 독서광, 1만5800원. /뉴시스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2월 9일〉

▷쥐띠
48년생: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60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이 잘 되고 편안한 하루가 될 것이다.
72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말을 조심하라.
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소띠
4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다른 사람과도 생각이 맞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심한 운.
73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른다.

▷호랑이띠
50년생: 서로 겉으로는 웃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니 속을 노출하지 마라.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수가 생기니 나서지 말라.
7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워도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86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윗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므로 스트레스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주변 사람에게 베풀어야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5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87년생: 타인의 일에 나서지 마라.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난다.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 때를 기다려라.
64년생: 강하게 나아가면 부러지니 적당한 타협만이 살길이다.
76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계약을 성사시키기에 좋은 운이다.
88년생: 용기만으로 행동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

▷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저녁에 하는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운.
77년생: 고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라.
89년생: 소화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해야 하는 운이니 섭생에 주의하라.

▷말띠
5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는 운이니 투자나 투기는 삼가고 자중하라.
66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매사 일찍 움직여라.
7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능력 발휘되는 좋은 운이다.
90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나 판단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지나친 자기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주의하라.
67년생: 윗사람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긴다.
79년생: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매사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9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

▷원숭이띠
56년생: 외부적인 일들이 생각 외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운이다.
68년생: 동기간과 함께 움직이면 이득을 볼 수 있겠다.
8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나 해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법.
92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니 타인과의 협력은 불가능하다.

▷닭띠
57년생: 식록이 따르는 운이니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6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
81년생: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93년생: 무리한 일은 과감히 포기하라.

▷개띠
46년생: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운이나 문제가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운이다.
58년생: 좋을 때 그 후의 일을 대비하라.
70년생: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주의하라.
82년생: 자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따르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돕거나 참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운.
5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는 운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71년생: 상황이 좋지 못할 때에는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려라.
83년생: 베푼 만큼 돌아오니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